

여름철 닭 관리요령

- 육계 사육밀도 10~20% 줄이고...비타민제 · 전해질제 활용 -

농 촌진흥청(청장 정황근)은 여름철 닭의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고 생산성을 유지하기 위한 양계 사양관리 요령을 제시했다.

닭은 땀샘이 없어 체온 발산이 어렵기 때문에 고온(30℃ 이상)이나 공기열량지수1) 2,300 이상의 환경에서는 입을 벌려(헐떡거림(Panting)) 체온을 발산한다. 이때 고온 스트레스를 최소화해 주지 않으면 생산성이 낮아지거나 죽을 수 있다(표1). 지난해 더위로 인한 가축 피해(폐사) 건수는 418만 마리(2016. 8. 24. 기준)였으며, 닭이 가장 피해가 컸다(395만 4천 마리, 표2). 농촌진흥청은 올해 더위가 일찍 시작됨에 따라 닭이 받는 스트레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표 1. 공기열량지수와 가축과의 상관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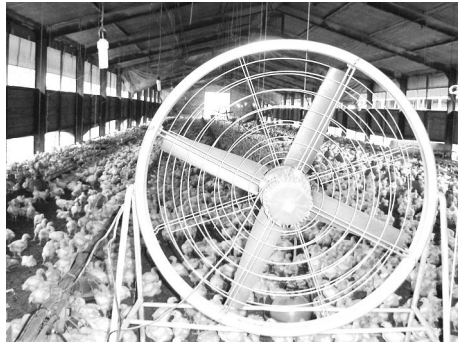
공기열량지수	가축의 상태 변화
2300 이상	위험(열사병 증세)
1800~2300	고온스트레스 받음
1300~1800	더위를 느낌
900~1300	쾌적 상태
500~900	추위를 느낌
300~500	보온 대책 마련 필요

* 공기열량지수(THI) = 온도(℃) x 습도(%)
(참고자료 : 2015 고온기 가축관리 핵심기술)

* 공기열량지수(THI) : 온도와 습도가 함께 가축에 미치는 영향을 수치화 한 것으로 온도와 습도를 곱한 값

먼저 닭장(계사) 지붕 위에 물을 뿌리거나 차광막을 설치하면 내부 온도를 낮출 수 있다. 무창계사(창 없는 닭장)는 환기팬의 속도를 높이고 개방계사도 중간에 연결식(릴레이식) 환풍기를 설치해 내부 공기를 순환해 정체되지 않게 한다. 또한, 쿨링패드 같은 냉방장치를 이용할 경우에는 사용 전 물이 새거나 막히는 곳이 없는 지 미리 점검한다.

사양관리 측면에서 육계(고기용 닭)는



▲ 닭장(계사)에 설치된 순환팬



▲ 쿨링패드

표 2. 더위로 인한 연도별 가축 피해현황 (2016. 8. 24. 기준)

(단위: 마리)

구분	합계	소	돼지	닭	오리	메추리
2012	1,857,347	33	727	1,766,094	79,290	11,203
2013	1,985,150	1	2,133	1,664,233	242,463	76,320
2014	994,059	-	186	977,765	16,108	-
2015	2,532,870	-	5,219	2,426,314	91,337	10,000
2016*	4,180,418	-	8,365	3,954,347	147,706	70,000

* 2016. 8. 24. 기준

* 닭의 경우 몸 전체가 깃털로 쌓여 있고, 땀샘이 발달되지 않아 체온조절이 어려워 폭염에 취약함.

사육밀도를 10~20% 줄이면 체열 발산으로 인한 온도 상승을 줄일 수 있다. 고온에서는 사료섭취량이 주는데 이는 생산성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된다. 하루 중 가장 시원한 시간대에 닭이 사료를 섭취할 수 있도록 이른 새벽이나 저녁 시간에 사료를 준다. 또한, 중조(중탄산염) 0.5~2%, 염화암모늄 0.3~1% 또는 비타민C 등과 같이 사료첨가제를 적절히 활용할 경우 고온 스트레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물 관리도 중요하다. 일반적인 환경에서 닭은 사료섭취량의 약 2배의 물을 마시는데, 고온에서는 음수량(물 마시는 양)이 사료섭취량의 4~8배까지 늘어난다. 신선하고 차가운 물을 충분히 공급하고, 매일 물통을 청소하고 소독해 소화기 계통의 질병을 예방한다. 농촌진흥청 가금연구소 강환구 농업연구사는 “올해는 이른 더위에 폭염과 열대야 일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체계적인 관리와 준비로 피해를 최소화하자.”라고 전했다. **양계**